

#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내일 개막...4000만 송이 애기동백꽃

### 압해읍 송공산 1004섬 분재공원서 내년 1월 31일까지 개최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등 체험행사 진행

신안군은 오는 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압해읍 송공산 1004섬 분재정원에서 '섬 겨울꽃 축제'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플라워 월(flower-wall)과 플라워 아치(flower-arch) 등의 포토존이 운영되고,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축제 기간에 작성한 엽서를 보관했다 내년 여름에 배달하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된다. 또 축제 기간에는 분재정원 내 저녁노을미술관에서 '겨울 풍경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작은 동물원 주위에서는 압해읍 관광협의회에서 먹거리와 기념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축제가 열리는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식재된 애기동백나무 2만 그루는 개화해 분재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000만 송이의 애기동백꽃이 관광객에게 환호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여 년 동안 진행된 섬 겨울꽃 축제가 이제는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신안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하얀 눈 속에 핀 새빨간 애기동백꽃을 보며 마음에 위안을 얻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을 조망할 수 있는 송공산 '1004섬 분재정원'은 5만여 평에 분재원과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700여 점의 분재와 소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등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신안군의 대표 관광지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신안 압해읍 송공산 분재공원 애기동백꽃길.

## "금연하면 영암이 쏜다"

### 영암군, 금연펀드 조성지원금 전달식 가져



영암군보건소는 지난 5일 현대삼호중공업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조성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군에 따르면 올해 6월에 시작한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은 현대삼호중공업 근로자 중 금연희망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1인당 조성금액은 10만원(개인 3만원, 사업장 2만원, 군 지원 5만원)으로 총 114명이 참여하였다. 펀드 조성비는 최종 성공자 수에 따라 1/N 분할 지급하게 되며, 금연펀드 운영 결과 참여자 중 총 56명이 금연에 성공하여 1인당 20만원 상당의 금연펀드 성공금과 성공기념품이 함께 제공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 내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 시도가 용이할 수 있고, 건강친화적인 기업환경이 구축된 효과를 가져왔다"며, "2023년에도 찾아가는 사업장 금연펀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지역의료 협의회 간담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 대응 지역의료 협의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안군 코로나19 대응 의료협의회는 무안군 보건소장, 소방서장 등을 비롯해 의사 및 약사 회장, 의료기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코로나19 대응 방향 등을 공유하고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지역사회 단위의 유기적이고 신속한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일반의

료 대응체계 강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전원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동절기 추가접종 및 먹는 치료제 투약 협력 방안 ▲의료기관 애로사항 수렴방안 모색 등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협의했다. 아울러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원스톱 진료기관,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이 지속 운영 및 확충될 수 있도록 협의회 코로나19 확진자의 불편감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함평군, 도로명주소 분야 연구과제 '최우수상' 수상

함평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공간정보 위크숍'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공간정보 위크숍'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지자체 사업모델 발굴과 주소정책 개발을 위해 전남도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함평군은 산책로와 숲길에 도로명주소를 부

여하는 방안을 주제로 도로명주소 분야에 참가했으며, 시화화 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발표력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주소정보 행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명훈기자

## 목포시, 2023년 목포 으뜸맛집 4개소 선정

### 서류 심사, 현장 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거쳐 결정

목포시가 지난 1일 '2023년 목포 으뜸맛집'으로 최종 4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 특색있는 별미요리, 위생관리 상태 등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으뜸맛집을 선정했다. 모든 심사는 식품·외식·관광 학계 관련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에서 이뤄졌는데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9월 공개모집에 접수한 30개소

중 행정처분, 신청자격 결격사유 조회 등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맛, 향토성, 서비스, 위생, 분위기, 영업철학 등 6개 항목에 대한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목포 으뜸맛집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마쳤다. 한편 시는 으뜸맛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존 으뜸맛집에 대한 점검을 지난 10~11월 실시했다. 점검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식품위생 업무 전문 감시원과 함께 진행했는데 전수조사와 재점검 등을 거쳐 5개소를 으뜸맛집에서



제외했다. 시는 매년 으뜸맛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으뜸맛집이 목포의 맛을 전국에 알리고 수준 높은 음식문화 정착을 선도하는 대표 음식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목포의 맛을 대표하는 으뜸맛집을 통해 목포 미식관광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군,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 위한 축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영광군은 지난 12월 2일 국제마음훈련원에서 축제전문가, 축제추진위원회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축제 전문가를 초빙하여 우리 지역 축제들의 실태 진단과 함께 축제 프로그램의 다변화 등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축제 추진위원회의 역량 강화로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불갑산상화축제·법성포단오제·백수해안도로

노을축제·찰보리 문화축제·천일염젓갈갯벌축제·영광굴비축제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6개 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지역축제의 높은 관심도를 입증하였다. 세미나는 축제별 실태분석과 신규 콘텐츠 개발 등 운영방안,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축제 대응방안 등 전문가 주제발표와 축제 전문가, 축제 추진위원회, 공무원이 함께하는 축제 발전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영광=서희권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